

공동주택 안전관리 강화 등 시민 삶의 질 향상 '주력'



정읍시가 건축행정 내실화에 주력하는 한편 공동주택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등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주력하고 있다.

시는 올해 건축분야에 80억원을 투입, 불우계층과 농촌의 주거환경을 개선해 소득계층 간 삶의 질 만족도 격차를 해소하고 시공 중인 공동주택 안전관리를 한층 강화함으로써 '재난·사고 없는 안전 정읍'을 만들어 간다는 방침이다.

▲농촌주거환경 개선으로 귀농·귀촌 유도, 정읍인구 15만 회복 '일석이조'

농촌주거환경 개선에 주력하고 있다. 100동의 주택개량과 함께 102동의 방치된 빈 집 정비사업과 빈집 활용 반 값 임대사업(2동)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통해 농촌지역 거주자의 정주여건을 개선, 귀농·귀촌 희망자들을 정읍으로 유도하는 한편 시가 주력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정읍인구 15만 회복'의 동력으로 활용한다는 전략이다.

한편 시는 이와 별개로 관외 거주자가 귀농 귀촌할 경우 주택개량 사업자로 선정, 주택 용자를 지원하고 있기도 하다.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선, 산외면 평사리 새마을사업 19일 착공

시는 오는 19일 산외면 평사리(평사지구 : 노은, 운전, 평사마을) 일대 취약지역의 생활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새마을 사업' 기공식을 갖고 본격적인 공사에 들어간 다.

도심 방치된 빈 집 철거 후 공영주차장을 이용 범위반 건축물 강력 조치 통해 부실 시공 등 방지 저소득층·국가유공자 열악한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

이 사업은 지난해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새마을사업) 공모사업'에 응모, 선정됨에 따라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다.

주택과 마을안길 정비, 재래식 화장실 개선 등 생활위생 안전 등 생활기반시설을 정비하고 마을쉼터 조성 등 경관 시설과 어울림마당과 재활용 집합장 등 공공이용시설도 조성할 계획이다.

시는 "취약지역 주민의 기본적인 생활수준 보장과 안전, 위생 등 건강한 생활인프라를 확충함으로써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높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시민 만족도 높은 도심 빈 집 정비사업

도심 빈 집 정비사업은 5년간 공영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것을 조건으로 건축주의 동의를 받아 시에서 빈 집을 철거하는 사업이다. 도심 주거환경 개선과 범죄 예방 등의 효과가 큰 사업으로 시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지난해 4개소(37대)에 대해 추진했고, 올해는 동 지역 빈 집 2개~4개소를 대상으로 추진할 예정으로 현재 희망자 신청을 받고 있다.

시는 올해부터는 구도심 활성화사업과 연계해 매년 추진

할 계획이다.

▲무질서한 건축행위 단속, 위반 건축물 사전 예방

무질서한 건축행위 단속을 통한 법질서 확립과 함께 위반 건축물 사전 예방에 총력을 쏟고 있다. 시에 따르면 상반기 점검대상은 2015년 11월 1일부터 2016년 4월 30까지 건축허가 대상 건축물이다.

중점 점검사항은 건축허가된 설계도서의 위법과 허위설계 여부, 부실공사 방지 및 공사 감리자의 의무사항 이행 여부 등을 점검할 계획이다.

위반 건축물의 건축주에 대해서는 위법조치와 함께 시정 조치하고 설계와 공사감리, 사용승인 업무 위반 건축사는 전복도에 행정조치를 의뢰하는 등 적법 절차에 따라 강력히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나눔과 희망의 집 고쳐주기사업 등 지속 추진

자활 능력이 부족한 저소득층의 열악한 주거환경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나눔과 희망의 집 고쳐주기 사업'의 올해 목표량은 모두 70세대이다. 기초수급대상자와 차상위 계층을 대상으로 지

붕과 주방 등 시설 보수와 함께 도배·장판 등을 교체하는 사업이다. 3월말 기준 현재 30세대에 대한 공사를 마쳤고, 11월까지 나머지 40세대에 마무리할 계획이다.

또 국가유공자 주거환경개선사업도 추진하고 있다. 국가유공자 중 의료수급 대상 가구의 노후불량 주택을 보수 지원하는 사업이다.

올해 사업량은 모두 15세대로 3월말 현재 3세대를 마쳤고, 11월까지 나머지 12세대로 완료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소외계층 주거시설 안전점검 및 보수사업도 추진하고 있다. 해마다 400세대 이상 추진해 오고 있는데, 올해도 지속적인 추진에 나선다.

▲정읍사랑 기술봉사단 운영으로 참 봉사 구현

건축과 직원을 중심으로 뜻있는 시 산하 직원들로 구성된 '정읍사랑 기술봉사단'의 헌신적인 봉사활동도 돋보인다.

이들 회원들은 매년 20여 세대를 선정해 주말을 이용해 월 2회에 걸쳐 봉사활동을 펼치고 있다. 특히 회원들이 남부한 자체회비와 단원들의 기술과 경험을 활용한 봉사활동 이어서 그 의미가 더욱 남다르다.

시는 이와 함께 저소득층의 주거 안전 등을 위한 주거급여 지원사업도 펼치고 있다.

임차가구에는 기존 임대료 범위 내에서 가구원 수에 따른 실제임차료를 현금으로 지원하고, 자가 가구에는 주택 노후도에 따라 수선유지 급여를 지원해주는 사업이다.

지난 3월까지 임차가구 3천88세대에 임차료를 지원했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수선유지급여사업 위·수탁협약을 체결하고 이달 현재 230세대의 자가 가구에 수선유지 급여를 지원하고 있다. /정읍=김대환 기자



e편한세상

복합도시의 편리함과 e편한세상이 만나
명품 주거의 기준이 되다!

모든 생활을 한자리에서 누리는 프레ستی지 주거명품

e편한세상 디오션시티

5월 20일(금) 모델하우스 오픈

분양문의
063) 468-3353

총 854세대 59㎡ 174세대 | 74㎡A 84세대 | 74㎡B 174세대
84㎡A 253세대 | 84㎡B 82세대 | 106㎡ 87세대(성원주택 기준)

www.samhoapt21.co.kr
www.daelim-apt.co.kr

모델하우스 주소 전라북도 군산시 조촌동 2-6번지

NAVER e편한세상 디오션시티

시행: 코리아산더아 시공: 대림산업, 주식회사 상호 분양용도: 아파트 및 부대관리시설, 근린생활시설

DAELIM SAMHO

※ 본 분양물의 사진 및 일러스트는 소액의 이미지를 보기 위해 제작된 것일므로, 실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면적 관련 사항은 인위적 변경될 수 있습니다.